

독일의 실천철학교과 분석을 통한 가정과 교육에서의 논술교육 연구

김은정*

중동중학교*

The study of Essay Writing Education in Home Economics Education Through Practical Philosophy Curriculum Analysis in Germany

Kim, Eun-Jeung*

*Joong-Dong Middle schoo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appropriate way of essay writing education which helps the learners perceive and express a stream of knowledge through Home Economics education curriculum by themselves. While one-way type, which teachers just give instructions to students and students just learn from them, has dominated the education, new education focuses on interactive and reciprocal way in thinking and researching together. This new stream requires appropriate and various education method as well as the new concept of education curriculum.

This study applies the curriculum of the German practical philosophy that recently has been a debated topic in Home Economics education. The purpose of the curriculum pursuits improving students' practical and critical thinking competence and essay writing is the center of it. In the curriculum learners write essays by asking and answering the questions through seven areas which students can experience based on three angles such as individual, social, and ideological viewpoints. In this process learners don't remain in the individual angles and are able to be trained as intellectuals who can lead the social and cultural change as well as the individual growth by getting an insight into the ideological angles.

The Germany curriculum what is mentioned in advance presents one possibility that essay education can be introduced in Home Economics education that has accessed the education process by the practical inference based on the practical philosophy. That is, Home Economics education shares the context with essay education whose

1) 교신저자: Kim eun-jeung, 692, Ilwon dong, Gangnam Gu, Seoul, 135-946, The Republic Korea.
Tel: 02-3411-9323 Fax: 02-445-9882 E-mail: coronia3@nate.com.

purpose is the intellect enlightenment because the former is the curriculum to make students build the abilities to access in many-sided angles not just one point, to deal with problems wisely, and to deduce the solutions. Therefore, students are expected to participate in the class dynamically by being satisfied intellectually abreast of practical essay education that helps learners read the stream of knowledge through Home Economics education. In this manner the category of Home Economics education will enlarge by making efforts to diversify the education methodology not staying only one method.

Key word: 논술교육(Essay Writing Education), 실천철학(Practical Psychology), 가정교육(Home Economics Education)

I. 서론

교육이란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회적으로 간주되는 문화를 교수-학습하는 의식적인 과정이다. 특히 가정교육은 다른 교과와는 달리 사적 존재로서의 각 개인의 다양한 삶의 면모와 친밀한 애정적, 경제적 공동체로서의 가족 내에서의 관계를 주된 내용으로 다루어 왔다. 그런데 현대에 이르러 가정(家庭)의 영역이 기존의 의·식·주, 가족 등의 생활 세계의 사적 영역을 초월하여 공동체 생활, 시민 활동, 지역사회와 일, 사회적 지원 체계, 문화 창출과 같은 생활 세계의 공적 영역의 일부에 까지 확대되고 있다(유태명, 2006). 따라서 가정교육의 목표도 기존의 목표 즉 현모양처로서의 여성의 덕을 함양하고 여성을 더욱 여성답게 만드는 것에서 남녀 모두를 사적 삶의 주체이자 공적 삶을 발전시키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지성인 양성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개별적 단위이자 사회적 기관인 개인과 가족으로 하여금 자아를 성숙하게 형성하고 사회적 목적과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을 비판하고 형성하는데 깨어 있어 협동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행동 체계를 유지하고 구축함을 가정교육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Brown & Paolucci, 1979: 조수경, 2007: 6 재인용).

이렇듯 가정교과와 내용과 목표의 변화는 가정교육의 방법론에 대한 진지한 재검토를 요구한다. 단순한 삶의 형태의 기술(記述)이나 기술(技術)의 습득 혹은 생활의 질적 향상을

목표로 한 기존의 교육 목표에 적합한 방법과는 구별되는 새로운 교육방법의 개발·도입이 절실히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가정교육은 다양한 문제 상황을 합리적이고 지혜롭게 해결하도록 학습자들의 지성 계발에 주력하는 실천적 문제 중심 교육과정을 시도하고 있다. 이 교육과정은 학습자들로 하여금 주어진 문제를 이성적으로 풀게 하고 그에 연관된 구체적이며 실천적인 행동을 유도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의 핵심적인 측면 즉 실천적 행동이 왜 중요하며, 그러한 행동의 배경에는 무엇이 있는가에 대한 숙고 없이 무엇을 행할 것인가에만 치중하여 교육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 결과 실천의 밑바탕인 개인의 경험에 대한 반성과 사회적 배경에 대한 인식, 무의식적으로 습득된 이념들에 대한 자각이 부족하여 학생들의 진정한 삶의 변화와 이성의 계발이라는 가정교육의 목표를 이루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가정교육에 논술교육을 도입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논술 교육은 가정교육에서 다루는 행동적 실천의 바탕이 되는 다양한 영역에 대한 논리적 추론을 말로 표현하고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 논리적 추론의 과정을 각자의 판단에 따라 글로 정리, 전개, 종합하여 표현하게 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로 논술교육은 글쓰기라는 과정을 통해 학습자들의 지적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에 그 목표를 두는데, 이것은 결국 가정교육의 목표 즉 합리적이고 비판적인 사고 능력을 갖춘 지성인 양성이라는 목표와 일맥상통하기 때문이다. 기존의 논술교육은 논증을 통한 글쓰기에 초점을 맞춘 철

학적 글쓰기와 문법과 맥락에 따른 글쓰기에 초점을 둔 국어 교과에서 주로 담당해 왔다. 그러나 논술교육은 다양한 교과에서 학습자로 하여금 명제적 지식의 습득을 넘어서 폭넓은 사고 능력을 키워 줄 수 있는 교육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다. 그렇다면 가정과교육에서 논술교육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7차 교육과정 이후 가정과교육은 실천철학의 토대 위에서 교육과정을 구성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실천철학은 다양한 가치들이 경합하는 다문화사회에서 일률적으로 정해진 가치체계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로 하여금 그 가치들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절한 논거를 제시하고 적절한 행위를 판단하고 선택하게 하는 가치교육이다(서은숙, 2006). 그런데 최근 독일에서는 이 학문을 하나의 독립된 교과로 만들어 윤리학을 대체하고, 이 교과를 통해 자연스럽게 논술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실천철학교과를 통해 논술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실천철학에 바탕을 둔 교육과정을 구성하고자 하는 가정과교육에서의 논술교육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독일의 실천철학 교과의 교육과정을 분석하여 가정과교육에서의 논술교육의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논술교육의 의미와 선행 연구 고찰

논술이란 문제 해결을 언어를 통해 하는 것이고, 언어활동에서도 글쓰기를 통해 하는 것이다. 이 논술은 무엇보다 문제 인식에서부터 문제 해결 과정에 이르기까지 고차원적인 능력을 요구하는데(한금음, 2007), 주어진 텍스트를 심층적이고 다양한 시각으로 분석하고, 독창적인 해결책을 도출해내며, 논리적 근거에 따라 조직적으로 글을 구성하고, 설득력 있게 표현해 내는 것은 어느 한순간에 이루어지지도 또는 어느 특정한 교과를 통해서 이루어지지도 않는다. 논술의 주제는 특정한 교과 내에 머무르지 않고 모든 교과목의 영역을

통해 도출될 수 있으며, 논술의 바탕이 되는 논리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학습자들은 다양한 영역에 대한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논술은 문학작품과 같은 단순한 창작적 글쓰기와는 구별되는, 추리와 정당화 근거를 제시하며, 현상을 설명하고 예측하는 글쓰기라고 할 수 있다(김영정, 2006).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논술 교육은 입시위주의 암기식 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 즉 교과서를 벗어난 사고를 하지 못하고, 정답을 찾고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정답주의’에 빠지게 하고(박정희, 2007), 글쓰기조차 규격화하는 우를 범하는 현재의 교육과정을 변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고 있다. 최근 논술성적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중등 학교 현장에서는 논술교육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우리 나라의 경우 초등학교 저학년에서부터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기본적인 훈련이 미약한 상황에서 비판적 사고 능력을 요구하는 논술교육을 실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왜냐하면 논술은 비판적으로 글을 읽는 능력과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석·분석하고 해결하는 능력,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능력이기 때문이다(김영정, 2006; 김병구, 2006).

그렇다면 논술교육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는 외국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현재 우리 나라의 논술교육의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박정희(2007)에 의하면 외국의 경우 논술교육은 학생들의 수학 능력의 평가 도구로 사용되고 있지만, 논술교육을 별도로 실시하지는 않는다고 한다. 논술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초등학교부터 다양한 수업시간과 과제를 통해 학생들에게 책을 읽고 주어진 텍스트를 분석해 해 끊임없이 글쓰기를 훈련시킨다. 프랑스에서는 초등학교 때부터 독서, 토론, 글쓰기 교육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생들이 논술에 충분히 익숙해진 상황에서 대학입학 시험인 바칼로레아에 임하게 된다. 영국은 아이들의 출생과 함께 언어교육 즉 듣고 말하기 중심의 의사소통 능력과 쓰기와 읽기를 중시함으로 제도적 교육 이전에 아이들은 이미 어느 정도의 읽기와 쓰기 능력을 갖추게 된다. 게다가 학교교과과정에서는 글짓기가 필수이며, 그 주제는 삶의 다양한 영역을 포함한다. 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초·중·고 12년간의 독서와 글짓기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개성적인 논리를 전개하는 ‘에세이’는 내신

SAT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예비 합격자가 대학교육에 적합한 사고력과 교양, 감성적 지능을 갖추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최종적인 판단 기준이 된다. 독일의 경우는 일반 대학 입학 자격은 원칙적으로 아비투어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부여하는데, 이 시험은 학교에서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논술하는 형식으로 치러진다. 논술 과제로는 자유 주제를 부여하고 논술하는 방식과 자료를 제시하고 논술하는 방식이 병용되고 있으며, 나아가 분석적 관점을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과 자료에 대한 해석을 문제로 부과하는 방식이 병용되고 있다. 이러한 논술 시험은 독일의 적극적인 독서 권장 활동을 통해 어릴 때부터 읽고 생각하는 것에 익숙한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상의 몇 나라의 사례는 논술교육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교육과정 내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서은숙, 2007). 즉 논술교육은 모든 교과교육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하며, 이 교육을 지도하고 평가하는 능력이 모든 교사들에게 요구되는 것이다(김슬옹, 2000).

한편 우리 나라의 경우, 논술교육은 주로 국어과, 사회과, 과학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각 교과가 추구하는 논술교육의 방향에는 차이가 있는데, 한금윤(2007)에 의하면 철학과와 국어과에서의 논술교육의 개념은 상이하다. 철학과에서의 논술은 ‘어떤 문제나 쟁점에 대한 논증을 통한 글쓰기’(박정일, 2006)로서 글쓰기는 논술을 포함한 유개념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의견이 부딪히고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공동체의 삶 속에서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한 글쓰기인 것이다. 박정하(2003)에 의하면 철학적 글쓰기를 교육과정에 적용할 때는 ‘읽기, 생각하기, 토론하기, 쓰기, 평가하기’의 다섯 가지 과정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반면 국어과에서의 논술의 개념은 문제 해결과정으로 접근하는 것은 비슷하지만 ‘언어로 문제를 해결하는 글쓰기’로 확대하여 ‘논증’ 자체보다는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고 있다(대한교과서, 2006). 어떤 현상이나 사물에 대한 이해력, 분석력, 판단력을 중심으로 논리적, 비판적, 창의적 사유 체계(論)를 통해서 자신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적절하게 타인에게 전달하는 쓰기(述)이다. 나아가 국어과에서의 글쓰기는 정서와 감정을 표출하는 글쓰기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 두 교과와 논술 교육은 모두 학생들의 감

성을 일깨우고, 논술 과정을 통해 상대방을 합리적으로 이해하며, 다양한 삶의 영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모두 의미가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외국의 경우에 비추어보거나 논술 능력의 토대가 전 과목의 영역을 아우름을 볼 때 논술교육은 어느 특정한 교과들에 국한되지 않고 가능한 많은 교과로 확대되어야 한다. 이렇게 대부분의 개방적인 인식을 가진 교사들이 논술교육에 참여할 때 진정한 의미에서의 통합 논술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한금윤, 2007).

2. 독일의 실천 철학 교과와 논술교육과의 관련성

현대의 문화적 다원성은 각 개인에게 스스로의 가치척도를 갖출 것을 요구한다. 오늘날 일상적인 삶의 현장에서 전통적인 가치와 규범체계가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교육을 통한 기존의 가치와 규범의 일방적인 전달은 그 의미를 크게 상실하게 되었다. 따라서 급변하는 문화와 사회 속에서 다양한 매체에 의해 제공되는 정보들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적 인식을 통해 선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존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일례로 최근 독일의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에서는 학습자 중심의 철학, 윤리학, 논술 수업 모델을 개발하여 학생들의 일상적 경험과 사회적으로 형성된 가치, 철학적 이념들을 효과적으로 결합하여 독특한 교수학습 과정을 개발하여 실행하고 있다.

강순전(2006)은 독일의 신 교과인 실천철학은 새로운 가치 교육의 모델을 제공할 뿐 아니라 효과적인 교수법, 수업 모델의 개발, 논술 지도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본다. 이 교과에서는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학습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효과적인 교수법으로 토론식 수업을 제시하고 있다. 수업의 내용은 학생들의 구체적인 삶과 일상적인 생활 경험(개인적 관점)으로부터 출발한다. 뿐만 아니라 개인의 경험에 반영된 사회적 관점을 다루며, 이 개인적 경험과 사회적 관점의 기저에 놓여 있는 이념들(이념사적 관점)을 파악하게 한다. 이 수업에서 행해지는 토론은 학생들의 역할에 수업의 성패가 달려있는 기존의 토론수업과는 차별화된다.

황경식(2000)에 따르면 실천철학에 근거한 새로운 수업 모델은 세 가지 관점을 통해 토론 수업을 다양화하면서 일상과 철학의 결합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고 학생들의 생각과 철학 이론의 일치성을 발견함으로써 학습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왜냐하면 실천철학은 일정한 가치체계를 교수자가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을 지양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다양한 가치가 경합하는 다문화 사회에서 적절한 가치를 판단하여 선택하고 그 과정을 논리적 추론에 따라 글 또는 말로 제시하게 하는 가치교육이기 때문이다. 또한 주어진 텍스트를 이해하는 훈련이며 자신만의 사고의 흐름을 산출하는 작업 즉 논술교육인 것이다. 교사들은 실천철학 수업을 통해 학생들에게 각 개인의 경험으로부터 출발하여 사회적 가치관과 갈등을 고려하고, 나아가 영향력 있는 근본 생각과 이념들을 분석하여 자신만의 논거를 들어 논증하는 사고 훈련을 시키는데, 이 과정에서 7가지 영역의 물음들은 논술교육을 위한 주제가 된다. 학생들은 이 주제에 관련하여 주어진 텍스트를 이해하고, 토론을 통해 서로의 생각을 교환하며, 이를 종합하여 자신만의 논거를 들어 글을 산출하는 논술교육을 하게 된다(강순전, 2006).

3. 가정과교육에서의 논술교육의 필요성

근·현대 가정과교육은 여자를 더 여자답게 만드는 여성의 사회화에 주안점을 두고 시작되었다. 근·현대 사회에서 가정(家庭)이라는 공간은 여성이 실제적으로는 가정 일을 돌보았을지라도 남성의 가(家)로 공식적으로 표현되어 왔다(박자영, 2003). 그런데 가정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가사활동의 주체가 여성임이 공식적으로 인정되기 시작한 것은 공적·제도적인 교육을 통해서이다. 가정학의 체계가 뚜렷이 갖추어지지 않은 초창기의 가정교과 내용은 여성 수공 기능을 중심으로 한 '가사(家事)'에 치중하였지만, '가정학(家政學)'이 학문적 토대를 갖추게 되면서 가정과교육은 과학적 합리성에 입각하여 능률적으로 가사작업을 담당하는 현모양처를 양성함으로써 여성으로 하여금 가정과 가사를 전달하는 주체로 호명하게 만들었다(박자영, 2004). 이렇게 가정과교육을 여성에게만 부과함으로써 가사에서

남성이 완전히 제외되고 가사의 주체가 여성으로 고정되었다. 즉 공식적 교육을 통해 여성과 남성의 역할 분리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가정과교육을 처음으로 시작했던 미국뿐 아니라 일본, 중국, 한국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최근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으로 남녀 공히 가정과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였다(한옥수, 1994; 박자영, 2004).

그런데 이러한 교육 대상의 확대는 교육과정과 교육방법의 변화를 요구하게 된다. 단순한 수공 기술과 주입식 교육에서 주체적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지성인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즉 가정과교육은 인간의 실생활을 응시하고, 그 양상을 철학적으로 파악하여 거기서 체계적인 학문의 확립을 도모하며, 이를 다시 일상생활에 환원하여 인간생활의 충실과 향상에 도움이 되는 교과가 되어야 할 것이다(세키구치 후사, 1996). 이를 위해서는 가정과교육의 주요 관심사인 '가정'의 역사적인 변화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우선되어야 한다. 즉 인류가 오랜 역사를 거쳐 노동하고, 생산하고, 소비하고, 생활하면서 쌓아올렸던 지식, 지능, 기술 등 문화를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사회화의 역할뿐 아니라 (무까이야마 다마오, 1987), 역사적으로 '무엇이 발생했고, 또 무엇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며, 비판적 시각으로 현재의 사건에 대한 역사적 인과관계를 도출하여 역사적 객관성을 부여해 주는(East, 1980: 정덕희, 1988, 재인용) 교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Brown과 Paolucci(1979: 정덕희, 1988, 재인용)는 '역사적인 전후관계를 통해서 각 개념의 의미를 찾고 역사적인 과정 속에서 가정학이 가지는 완전한 의미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역사적 연구방법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Brown(1980)은 또한 '문화전통은 규범과 같은 개인적 삶의 형태를 만들어 주고, 사회, 가족, 사회적 관계를 융합시키므로, 실천과학으로서 가정학은 가족이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이 문화전통을 전수하는 인적 재생산이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함을 인정한다'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가정과교육은 다양한 문제 상황에 직면하여 이를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실천적 추론에 의한 문제 해결에 목표를 둔 교육과정을 시도하고 있

다. 현재 가정과교육에서 실시하고 있는 실천적 추론 수업은 Laster(1987)가 개발한 실천적 행동 가정과교수법(Practical Action Teaching Method In Home Economics)을 토대로 하고 있다. 이 교수법은 문제정의, 실천적 추론(의사결정 능력 향상), 행동, 행동에 대한 평가(행동과정 반성, 새로운 목표 설정)로 단계별로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실천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실천적 추론이 중요하며, 학습자는 실천적 추론을 위한 질문을 통해 숙고의 과정을 거쳐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였다(채정현, 1999). Cheryl(2005)에 따르면 미국 가정과 수업에서 실천적 추론에 따른 가정과 수업을 통해 학습의 주체가 교사에서 학생으로 전환될 수 있으며, 문제를 정의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과정과 맥락 속에서 문제를 실험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능성 있는 행동들의 결과를 생각하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 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한다.

유태명(2006)은 가정과교육의 내용을 항구적인 질문을 갖는 실천적 문제이며 가정생활의 문제를 사회적 관점에서 정의하고 접근할 수 있는 능력과 도덕적 타당성 및 정당성을 추구하는 행동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기서의 실천적 문제는 실천적 지식을 토대로 형성된 문제이며 이는 성찰의 문제와 관련된다. 즉 교사와 학습자가 스스로 성찰함으로써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 실천적 지식인 것이다(최인자, 2006). 가정과교육에서 추구하는 개인과 가정생활에서의 의미 있는 가치의 보존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의사 결정과 행동을 수반하며, 이러한 실천적인 문제들은 다양하고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 사고에 기반을 둔 행동이며, 이론적 문제들은 사고에 중점을 두므로 일반화된 진리가 만들어질 때 해결된다(Brown, 1978; 유태명, 2006 재인용). 즉 도덕적이고 창조적, 비판적 능력을 배양하면서, ‘What should we do?(우리는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라는 실천적 질문에 초점을 맞추도록 한다.

실천적 추론 수업은 주로 협동 학습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일단 모둠을 구성하고, 모둠별로 자료를 배분하고 교사가 제시하는 다양한 질문에 답하고 토론하는 것을 위주로 하는 교육이다. 교사와 학습자 사이에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질문을 통해 문제에 얽힌 맥락을 파악하고 문제의 해결 방안이 자신과 타인 그리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따져보면서 학생

들의 감성을 자극하고 상상력을 마음껏 발휘하고 자신의 내부를 드러내게끔 하는 방법이다(채정현 외 3인, 2003).

그런데 이 과정에서 만약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실천 즉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라는 질문에만 초점을 맞추고,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것에 급급하다면 학습자의 사고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유로운 이성을 통한 논리적 추론을 글로 표현하는 논술교육이 필요하다. 결국 실천적 문제 중심 교육과정은 논술교육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의 논술교육은 단순한 글쓰기라는 행위가 아니라, 논리적, 철학적 사고의 기반을 갖춘 글쓰기여야 하며, 개인의 삶의 각 영역들을 비판적으로 읽어내고 논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기초가 되어야 한다. 또한 가정과교육은 글쓰기 기술을 가르친다기보다는 글쓰기라는 그릇에 답을 내용을 교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논술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김영정, 2006).

III. 가정과교육에서의 논술교육

1. 가정과교육에서의 논술교육의 방향

최근 가정과교육에서의 실천적 추론에 입각한 문제해결 중심 교육과정은 다른 학습자와의 활발한 합리적 의사소통에 따라 개인과 사회와 문화의 맥락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의사소통 행위가 중요한데 모든 학습자가 각자의 의견을 합리적인 이성의 발현을 통해 자유롭게 표현하고, 합의하고, 합의한 것에 대해 글을 쓰는 과정을 거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자신의 견해와 주장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제시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주장을 논리적 관점에서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의사소통의 양이 증가한다 해도 공허한 의사소통에 그치거나(박정하, 2003), 학습자들의 동기 및 능력 부족으로 인해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김중환, 2000). 이러한 이유에서 의사소통능력의 향상(채정현, 1999)뿐 아니라 논술이 필요하

다. 이렇게 학생들은 논술을 통해 타인과 세상을 공유하며,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게 된다(한금윤, 2007).

그렇다면 가정과교육에서의 논술교육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가정과교육에서 논술교육이 가능함을 시사해 주는 『EBS 사고와 논술』(2006)의 내용 중 ‘사랑을 도덕의 잣대로 썰 수 있는가’(성에 대한 개념적 접근), ‘임신 중절을 허용해야 하는가’(인간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가), ‘유전자 변형 농산물인가, 유전자 조작 농산물인가’(입증의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는가) 등의 주제는 가정과교육의 영역이다. 이 책에서는 철학적 논증에 따라 전제와 결론의 관계를 통해 명제의 참과 거짓을 논하고, 삼단논법을 통해 결론 도출하기 등으로 글쓰기를 지도하고 있다. 하지만 논증을 통한 글쓰기가 학습자로 하여금 문제를 바르게 인식하고, 자신의 비판적인 인식에 따라 글을 쓰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은 아니다. 논증적 글쓰기는 설득의 의도가 담긴 글쓰기인데 주로 의견이 부딪히고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공동체의 삶 속에서 등장하는 것이며, 삶을 고양시키는 적극적인 측면보다는 우리 삶의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소극적인 측면과 강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박정하, 2003). 따라서 논술교육을 전면에 내세우고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철학이나 국어교과의 경우와는 달리 가정과교육에서는 가정과교육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논술교육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시 말하면 교과교육에 우선권을 두고 지성의 계발이라는 교과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 논술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학습자들의 통합적이고 비판적인 사고 능력 계발에 힘쓰는 것이다. 결국 가정과교육에서는 글쓰기를 위한 교육이 아니라 글쓰기를 통한 교육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2. 독일의 실천철학교과를 분석하여 가정과 논술교육에의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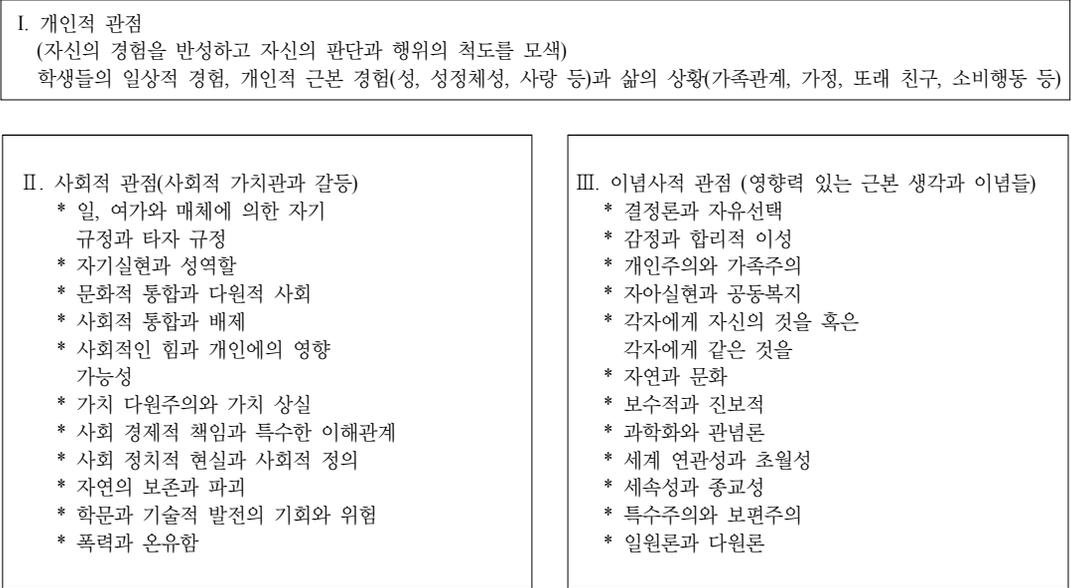
강순전(2006)에 의하면 독일의 실천철학교과라는 학습자 중심의 수업모델로서 학습자에게 정향됨(oriented)인데 현실의 체험이나 학생들의 구체적인 삶과 일상적 생활로부터 출발

(개인적 관점)하면서도 여기에 머무르지 않는다. 개인적 관점에서는 학생들이 자신의 경험과 행위를 객관적으로 반성함과 동시에 자신의 행위의 기준을 숙고하게 한다. 그런데 학생들의 경험과 지각은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전체 사회의 문제, 즉 경합하는 가치와 이해관계들의 반영이다(사회적 관점). 결국 개인과 사회의 관점들은 그 사회의 지배적인 근본이념들의 표현이자 결과인 것이다(이념적 관점). 따라서 실천철학에서의 교육은 학습자들이 이제까지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개인적 경험과 행위, 사회적 기준, 가치 등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재해석하여 글로 표현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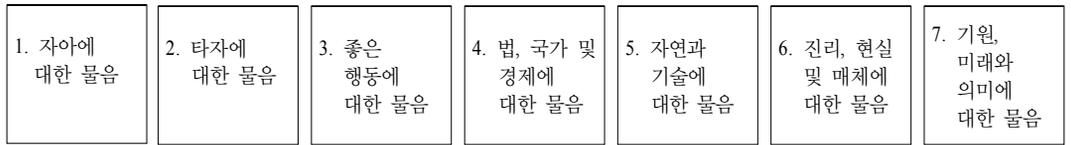
실천철학교과에서는 학생들의 구체적인 일상적인 경험으로부터 출발하여 그것에 반영된 사회적 관점을 거쳐, 이념사적 관점으로 학습 수준을 향상시키며, 이 과정에서 다른 학생들과 토론의 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완성된 사상체계(thought)를 암기하는 것에서 머무르지 않고 스스로의 사고의 과정 혹은 사고방식(thinking)을 거쳐 사고 교육에 이르게 된다(황경식, 2000). 수업 중 토론 과정에서 하나의 교수법 즉 개인적 관점이 부진할 경우에는 다른 관점 즉 사회적 관점 혹은 이념사적 관점으로 진행해 나가는데, 이는 하나의 관점에서 다른 관점으로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과정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다른 관점으로 전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실천철학의 수업 목표는 체계적인 수업 운영이 목표가 아니라 학습자들의 경험과 숙고와 분석, 분화, 확장, 심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즉 자신의 삶의 경험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함께 삶의 경험과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인 가치관들을 평가한다. 더 나아가 개인에게 중요한 세계관과 이념사적 관점들을 이해하고, 다문화 사회에서 고유한 전통 문화와 다른 문화의 특징들을 이해함으로써 관용의 마음을 가지게 한다.

이러한 독일의 실천철학교과라는 예는 실천철학에 바탕을 두고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가정과교육에서도 논술교육이 가능함을 시사해 준다. 이 연구에서는 강순전(2006)의 독일의 실천철학교과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철학, 논술, 윤리 교육을 위한 수업모델을 제안한 것을 중심으로 가정과 교육에서의 논술교육의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강순전이 제시한 (1) 교수법적 관점 ~ (4) 교수·학습 과정 안을 기본으



[그림 1] 교수법적 관점의 구성



[그림 2] 물음 영역

로, (2) **물음영역**에서 가정교과와 관련된 물음 영역을 도출하였으며, (3) **주제 영역**에서는 3가지 교수법적 관점과 물음 영역에 관련된 다양한 가치들을 제안하였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2) **물음 영역** 중 가정과교육에서 다루어져야 하지만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7. **기원, 미래와 의미에 대한 물음**을 선택하여 (1) **교수법적 관점** ~ (3) **주제 영역**을 중심으로 (4) **교수·학습 과정 안**을 구성하였다.

1) 교수법적 관점

[그림 1]에서 보듯이, 교수법적 관점은 개인적 관점, 사회적 관점, 이념사적 관점으로 이루어진다. 개인적 관점에서는 학생의 일상적인 경험이나 삶의 상황들을 전달하며, 이 과정에서 자신의 현재의 행동을 반성하며, 자신의 판

단과 행위의 척도를 모색한다. 사회적 관점에 따르면 학생들의 경험과 지각은 단순히 개인의 것이 아닌 전체 사회의 가치가 반영된 것이며, 학생들의 가치 결정과 행동은 사회에서 적절하다고 요구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을 표현해 준다. 이념사적 관점에서는 개인과 사회의 가치는 사회의 영향력 있는 생각과 이념들의 결과이다. 이러한 이념들은 개인의 일상과 삶의 상황, 경험에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으로 작용하여 개인의 행동을 규정하고 규제하고 있다.

2) 물음영역

학생들은 [그림 2]의 물음 영역과 관련된 주제들을 찾아내고 스스로 답을 찾는 과정을 통해 인식 능력과 반성

〈표 1〉 3가지 교수법적 관점과 주제영역

교수법적 관점	주제영역: 7. 가정과교육에서의 기원, 미래와 의미에 대한 물음				
	가) 창조와 진화	나) 시간과 시간성	다) 행복과 삶의 의미	라) 노동	마) 여가와 자유시간
개인적 관점: 개인적 판단과 결정의 척도	- 행복은 주어지는 것인가? - 행복은 내가 만드는 것인가?	- 내가 행복한 것은 짧기 때문인가? - 나이가 들어도 행복할까?	- 행복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 미하는가?	- 나에게 주어진 일 은 나에게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있는 가?	- 주어진 자유시간을 어떻게 보내는 것 이 행복한가?
사회적 관점: 사회적 가치관들과 그것들의 충돌	- 행복의 기준의 다양성 - 불행과 행복의 기준 차이	- 시대에 따른 행복의 척도 차이	- 생존을 위해 사는 가? - 목적을 위해 사는 가?	- 노동을 통한 행복 - 노동으로 인한 괴로움	- 행복과 여가와 의 상관관계 - 자유시간의 장점과 단점
이념사적 관점: 세계관적, 종교적 기초와 전개 및 이념사적 연관들	- 인본주의적 관점에서의 인간의 행복 기준 - 종교적 입장에서의 인간의 행복 기준	- 영원에 입각한 행 복추구 - 윤회적 사상에 따른 행복추구	- 물질만능 주의 - 젊음 숭상	- 일과 행복의 상관 관계 - 육체적 노동과 정신적 노동	- 여가시간과 행복과 의 상관관계 - 노년의 여가와 청년의 여가

력, 판단력을 키울 수 있다. 이때 정답은 제시되지 않으며, 학생들은 경합하는 다양한 가치와 생각들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자신만의 논거를 들며 자유롭게 논술한다.

3) 주제 영역

위의 물음 영역에서 강순전(2006)²⁾이 제시한 주제 영역을 기초로 하여 가정과교육과 관련한 주제(①~⑦)와 (1) 교수법적 관점과 (2) 물음영역을 통합하여 주제 영역의 상세한 내용을 연구자가 제시하면 <표 1>과 같다.

- ① 가정과교육에서의 자아에 대한 물음: 자아 정체감, 우정, 사랑, 성역할, 성
- ② 가정과교육에서의 타자에 대한 물음: 또래관계, 가족 관계, 성행동에 대한 책임, 가족 간 의사소통, 이웃을 위한 책임, 다문화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기

- ③ 가정과교육에서의 좋은 행동에 대한 물음: 예절, 신분, 가족규범과 사회 규범, 도덕적 가치에 따른 행동
- ④ 가정과교육에서의 법, 국가 및 경제에 대한 물음: 법과 정의, 가족관계와 법과의 관계(호적법, 친족법 등), 공동체, 경제적 구매 결정의 의미, 가족복지, 빈곤(사회적 보호)
- ⑤ 가정과교육에서의 자연과 기술에 대한 물음: 삶에 대한 경고, 환경으로서의 세계와 공존 세계로서의 자연, 기술의 사용과 위기, 생태 대 경제
- ⑥ 가정과교육에서의 진리, 현실 및 매체에 대한 물음: 진리와 가상, 매체의 가상성과 실제성, 선입견과 판단, 좋은 취향과 나쁜 취향 등
- ⑦ 가정과교육에서의 기원, 미래와 의미에 대한 물음: 시간과 시간성, 행복과 삶의 의미, 노동, 여가와 자유 시간

2) 강순전(2006)은 각 물음영역에 해당하는 주제 영역들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자아에 대한 물음에는 정체성, 자유와 부자유, 감정과 오성, 육체와 성이라는 주제를, 둘째, 타자에 대한 물음에는 공동사회에서의 삶, 친구들과의 만남, 파트너 관계, 우정, 사랑, 사회적 역할에 맞는 태도와 단체 행동, 다문화 사회에서 함께 살기를 제시하고 있다. 셋째, 선한 행동에 대한 물음으로는 양심, 자유와 책임, 욕망과 의무, 분쟁 다루기를, 넷째, 법, 국가, 경제에 대한 물음의 주제로는 규칙과 법칙, 법과 정의, 제도와 국가 형태, 민중 공동체(평화, 정치적 유토피아, 빈곤과 복지, 경제적 절정의 목표와 참뜻)를 제안하고 있다. 다섯째, 자연과 기술에 대한 물음에는 삶에 대한 경고, 환경으로서의 세계와 공존 세계로서의 자연, 자연을 탐구, 지배, 보존하기, 기술의 사용과 위기, 생태 대 경제라는 제목을 제시하고 있다. 여섯째, 진리, 현실과 매체에 대한 물음에는 진리와 가상, 논리적 참과 거짓, 매체의 가상성과 실제성, 선입견과 판단, 좋은 취향과 나쁜 취향을, 일곱째, 기원, 미래와 의미에 대한 물음에는 창조와 진화, 시간과 시간성, 행복과 삶의 의미, 노동, 여가와 자유 시간, 자연사와 사고사, 종교성, 종교의 분파와 심령론이라는 물음영역에 해당하는 주제 영역들의 제목을 제시하였다.

4) 교수·학습 과정 안 제시

실천 철학에서는 통일된 교안을 제시하지 않고 교사 각자가 물음 영역과 주제 영역을 고려하여 자유롭게 교안을 구성하며, 교안을 구성할 때는 물음 영역의 내용에 합당한 주제를 설정한다. 이 논문에서는 위에서 제시한 (2) 물음 영역에서 가정과교육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지만 많이 다루어지지 않았던 ⑦ 기원, 미래와 의미에 대한 물음(행복)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세 가지 관점(개인적 관점, 사회적 관점, 이념사적 관점)에 따라 학생들은 주제와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들을 열거한 후, 이를 토대로 근본 물음을 추출한다. 이 물음에 대해 학생들은 응답을 하면서 자연스러운 논술이 진행될 수 있다. 논술을 돕기 위해 학

생들에게 실제 체험이 가능한 전문적인 방법을 제시하여 자신의 생각을 검증하고, 분석하고, 비판해 나간다. 이러한 자연스러운 글쓰기 과정을 통해 점차적으로 합리적인 논거를 제시하는 글쓰기 과정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아래의 <그림 3>은 가정과 교육과정에서 논술교육을 위한 수업 모델을 제시한 예이다. 이 수업 모델은 온전한 지식의 체계를 전달하려는 것이 아닌 수업의 내용과 방법을 조절할 수 있게 함으로 학습자가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토론을 통해 상호간의 합리성에 입각한 설득을 하며, 더불어 삶에 실천하기 위한 방법을 논의한다. 이 과정에서 논술은 학습자의 사고의 과정을 정리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되는 것이다.

<p>문제 영역: 7. 기원, 미래와 의미에 대한 물음</p> <p>주제 영역: 행복 주제: “물질적인 풍요가 행복을 보장해 주는가?” 앞선 설명: 행복감은 개인적 근본 경험에 속한다(제1관점). 각자의 개인적인 경험들이 수렴되고,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행복의 기준에 대한 논의들이 전개된다(제2관점). 이 과정에서 물질주의와 합리주의, 다양한 매체가 제시하는 생각들에 의해 각인된다(제3관점).</p>		
<p>II. 사회적 관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형적인 행복한 사람의 모범상 (가족, 매체 등) *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삶의 모델들 * 예외적인 경우들은 통합할 것인가 배제할 것인가? * 물질과 행복과의 관계 	<p style="text-align: center;">I. 개인적 관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는 행복한가? * 나는 물질이 있고 없음에 따라 행복감을 느끼는데 차이가 나는가? * 나의 자존감은 물질의 유무에 따라 좌우되는가? * 물질은 행복의 필요조건인가, 충분조건인가? <p style="text-align: center;">근본 물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질이 인간의 행복을 어느 정도 결정하는가? * 미래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하는가? * 행복은 무엇으로 규정되는가? <p style="text-align: center;">전문적 방법(실천을 위한 방법 제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유 실험: 부자와 가난한자의 삶 장·단점 비교 * 역할 놀이: 일종독자 대 여유를 즐기는 사람 * 텍스트와 그림들을 철학적으로 다룸: 행복의 요소들 	<p style="text-align: center;">III. 이념사적 관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복을 나타내는 척도는 무엇인가? * 국가별 행복감 지수에 대한 비교 * 행복은 자연적 현상인가 문화적 현상인가? * 행복의 다양한 모습들 * 최빈국과 선진국에서의 개인 삶의 모습

[그림 3] 교수·학습 과정 안

IV. 결론 및 제언

최근 대학입시에서 논술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많은 교과에서 학습자들에게 그 교과에 관련된 글을 읽고 생각하고 쓰게 하는 교육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교육과정 전반을 통해 자연스럽게 논술교육이 이루어진다면 학생들은 지식을 보다 통합적으로 습득하게 될 것이며 특히 글 쓰는 과정을 통해 논리적·비판적 사고 능력이 계발될 것이다. 따라서 최근 가정과교육에서도 학생들의 지적 능력의 향상을 위해 실천적 문제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하고자 한다. 즉 학습자들로 하여금 다양한 삶의 맥락을 파악하고 자신과 타인과 사회를 위해 자신이 무엇을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을 구성하는 것이다. 이 경우 가장 중요한 개념이 실천적 추론인데 종전의 기술적, 도구적 관심에 근거한 암기식 교육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출발한 교육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교육과정은 제한된 수업시수와 학생들의 성숙한 의사소통 능력의 부족으로 현장에 적용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여기서의 의사소통 능력이란 자신의 관점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능력만이 아니라 상대방의 관점도 그가 말한 의도대로 받아들이는 능력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러한 능력은 어느 한순간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정확하게 글로 표현하는 훈련 즉 논술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논술은 어떤 주제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기술하는 것에서부터 이 주제와 관련된 정보 수집과 다양한 맥락을 고려한 글쓰기까지 폭넓게 진행될 수 있다. 따라서 가정과교육에서의 논술교육은 글을 쓴다는 행위 자체와 기술뿐만이 아니라 글쓰기라는 과정을 통해 학습자에게 필요한 지식과 근거를 찾아가는 과정이며, 이 과정을 통해 지성의 계발이 이루어진다면 가정과교육의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 즉 기존 사회의 이념과 가치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따르는 체제 적응적인 인간이 아니라 그 체제를 창조적으로 변혁시키는 주역이 되도록 그들의 사고력 향상에 주안점을 두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 연구는 교육의 과정을 통해 학습자 스스로 지식의 흐름

을 인식하고 표현할 수 있는 논술교육에 적합한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하였다. 지금까지의 교육이 교사는 가르치고 학생들은 배우는 일방적인 형태였다면 앞으로의 교육은 함께 생각하고 탐구하는 상호적이고 쌍방향적인 과제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새로운 교육과정의 구성뿐만이 아니라 그에 적합한 다양한 교육방법을 요구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논술교육을 독일의 실천철학이라는 교과의 교육과정을 참고로 가정과 교육에 적용해보았다. 실천철학교과에서는 학습자들로 하여금 기존의 개인적 경험과 행위, 사회적 기준, 가치 등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재해석하여 글로 표현하도록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습자들은 개인적 삶의 변화는 물론이고 나아가 사회, 문화의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지성인으로 양성되는 것이다.

독일의 이 교과는 실천철학에 입각하여 실천적 추론에 따른 교육과정을 모색하고 있는 가정과교육에서 논술교육을 도입할 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을 시사해 주고 있다. 즉 가정교과는 삶의 다양한 상황을 폐쇄적인 사고 즉 단답형의 사고가 아니라 다각적인 시각으로 접근하여 지혜롭게 대처하며 해법을 도출해내는 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교과이기 때문에 학습자들의 지성계발을 그 목적으로 하는 논술교육과 맥을 같이 한다. 따라서 가정과교육에서 다양한 영역에 대한 지식의 흐름을 읽어낼 수 있는 실천으로의 논술교육을 병행하여 학습자들의 지적 만족감을 충족시킴으로써 학생들의 역동적인 수업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의 교육방법에만 머무르지 않고 교육방법을 다양화하기 위한 노력을 통해 가정과교육의 영역은 더욱 넓어질 것이다.

이 글을 맺으면서 다음과 같이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우선 가정교과에서 논술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때 국어나 철학과의 논술교육과의 차이점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으나, 논술교육의 효과를 고려해 볼 때 향후 논술교육은 특정 교과를 넘어 다양한 교과를 통해 이루어져야 함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물론 논술교육의 방법은 가정과교육의 특색에 맞게 개발해야 한다. 두 번째로는 가정 교과서에 논술교육을

위한 다양한 주제를 어떻게 선별하여 체계적으로 제시할 지에 대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개인적 차원이 아닌 공동의 폭넓은 연구를 통해 개발해 나가야 한다. 세 번째로는 시간적 제약이 따르는 수업의 현장에서 학습자들로 하여금 어떻게 자신의 생각을 충분히 심화시키고 정확하게 표현하도록 할 수 있는 지에 대한 탐구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론 논술능력의 기초가 결국은 독서임으로 가정과교육에서 필요로 하는 주제와 연관된 다양한 책들을 목록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강순전(2006). 실천철학: 철학, 논술, 윤리 교육을 위한 학습자 중심의 수업 모델. 한국철학사상연구회. **시대와 철학**, 17(3), 175-204.

김병구(2006). 논술과 작문 교육의 관계 정립을 위한 시론, 의사소통 교육이 이념과 방향. 숙명여자대학교 의사소통센터, **2006년도 학술발표대회**.

김슬옹(2000). **통합교육을 위한 삶 쓰기 논술교육**. 인간과 자연사.

김영정(2006). **EBS 사고와 논술**. 한국교육방송공사.

김종한(2000). 토론식 수업의 이론과 절차. 충남대학교교육발전연구소. **교육발전논총**, 21(1), 237-250.

대한교과서(주)(2006). **고등학교 논술**. 대한교과서.

무카이야마 다마오(1987). 일본 중학교에서의 남녀공통 이수 기술·가정과교육의 실천 경험. **대한공업교육학회**, 12(1), 63-76.

박자영(2003). 소가족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현대 중국 도시의 경우 - 1920~30년대 『부녀잡지』에서 전개된 가족논의를 중심으로. **중국어문학논집**, 제 25호, 335-356.

박자영(2004). ‘가사’ 및 ‘가정’ 과목의 탄생-중국 현대 여성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중국학연구회**, 29, 275-297.

박정일(2006). 논술과 토론의 개념. **철학과 현실**, 2006 가을호, 139.

박정하(2003). 인문 교육의 근본: 글쓰기 교육의 이론과 실제-철학 교육의 관점에서-. 한국철학사상연구회. **시대와 철학**, 14(1), 175-195.

박정희(2007). 외국의 논술교육 사례 연구. 한국동서철학회논문집. **동서철학연구**, 44, 5-33.

서은숙(2007). 도덕·윤리과에서 논술 교육의 필요성과 방향. **한국윤리학회**, 65, 125-154.

세키구치 후사 외 편저(1996). **가정철학-인간수호를 주축으로 하는 가정학의 확립을 위하여**. 김외숙·장용선 공역. 교문사.

유태명(2006). 실천적 문제중심 교육과정의 이해. **가정과교육학회동계학술대회**. 7-28.

정덕희(1988). 가정학 과거, 현재, 미래와 가정학의 과제. **서울교육대학 논문집**, 21, 155-166

조수경(2007). **선행 조직자 모형을 이용한 중학교 가정교과의 교수·학습 과정안 개발**.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채정현(1999). 실천적 추론 가정과수업과 다른 요인이 한국 여고생들의 의사결정 능력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7(3), 43-61.

채정현, 유태명, 박미정, 이지연(2003). 실천적 추론 가정과 수업이 중학생의 도덕성에 미치는 효과. **대한가정학회지**, 41(12), 53-68.

최인자(2006). 국어교과사의 실천적 지식 성찰을 위한 방법론적 탐색-성찰적 내러티브 탐구 방법을 중심으로-. **한국문학교육학회지**, 21, 77-111.

한금윤(2007). 의사소통 활동으로서 논술교육의 방향 연구-논술교육의 실제와 쟁점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연구학회**, 32, 39-70.

한옥수(1994). 일본의 가정과교육.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6(1), 95-102.

황경식(2000). 중등교육에서의 철학 윤리 논리교육/교육개혁은 철학적 윤리교육으로부터. **철학연구회**, 50, 63-85.

Brown, M. M.(1978). A conceptual scheme and decision-rules for selection and organization of home economics curriculum contents: *Wisconsin Department of Public Instruction*.

Brown, M, M.(1980). What is home economics education. *Minnesota Research and development Center*.

Brown, M. M. and B. Paolucci(1979). Home Economics: A Definition. *Alexandria, VA: Americ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Cheryl A. Mimbs(2005). *Teaching from the critical thinking, problem-based curricular approach: strategies, challenges, and recommendations*. Journal of Family and Consumer Sciences Education, 23(2), 7-18.

Laster, J. F.(1987). Instructional strategies for teaching practical reasoning in consumer homemaking classroom In R. G. Thomas(Ed), Higher order thinking Definition, meaning and instructional approaches(pp. 44-61). Washington, D. C.: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Marjorie East(1980). Home Economics-Past, Present, and Future. Boston: Allyn and Bacon, Inc. 263-267.

<국문요약>

이 연구는 가정과교육에서 교육의 과정을 통해 학습자 스스로 지식의 흐름을 인식하고 표현할 수 있는 논술교육에 적합한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하였다. 지금까지의 교육이 교사는 가르치고 학생들은 배우는 일방적인 형태였다면 앞으로의 교육은 함께 생각하고 탐구하는 상호적이고 쌍방향적인 과제가 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새로운 교육과정의 구성뿐만 아니라 그에 적합한 다양한 교육방법을 요구하게 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논술교육을 독일의 실천철학이라는 교과의 교육과정을 참고로 가정과교육에 적용해보았다. 이 교과의 교육과정은 학생들의 실천적이고 비판적인 사고 능력 신장을 도모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 논술교육이 자리 잡고 있다. 이 교과는 개인적 관점, 사회적 관점, 이념사적 관점의 3가지 관점을 토대로 학습자들이 경험할 수 있는 7가지 물음 영역을 통해 질문을 주고 대답하는 방식으로 논술을 하도록 한다. 이 과정에서 학습자들은 개인적 관점에 머무르지 않고 그 배경에 있는 이념사적 관점에 대한 통찰을 통해 개인의 삶의 변화는 물론이고 나아가 사회, 문화의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지성인으로 양성되는 것이다.

독일의 이 교과는 실천철학에 입각하여 실천적 추론에 따른 교육과정을 모색하고 있는 가정과교육에서 논술교육을 도입할 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을 시사해 주고 있다. 즉 가정과교육은 삶의 다양한 상황을 폐쇄적인 사고 즉 단답형의 사고가 아니라 다각적인 시각으로 접근하여 지혜롭게 대처하며 해법을 도출해내는 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교과이기 때문에 학습자들의 지성계발을 그 목적으로 하는 논술교육과 맥을 같이 한다. 따라서 가정과교육을 통해 다양한 영역에서 지식의 흐름을 읽어낼 수 있는 실천으로의 논술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함으로써 학습자들의 지적 만족감을 충족시킴으로써 학생들의 역동적인 수업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의 교육방법에만 머무르지 않고 교육방법을 다양화하기 위한 노력을 통해 가정과교육의 영역은 더욱 넓어질 것이다.

■ 논문접수일자: 2007년 11월 8일, 논문심사일자: 2007년 11월 12일, 게재확정일자: 2007년 12월 21일